강진군 '마량놀토수산시장' 지역 상권 활성화 견인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30회 운영
판매장·음식점 등 23개 부스 설치
누적 관광객 114만명·매출 104억

강진군이 남해안 대표 수산물 축제인 '마량놀토수산시장'의 올해 운영을 본격화하며, 다채로운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결합된 관광 명소 육성에 속도를 낸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마량면 미랑항 중방파제 일원에서 막을 올린 '2026년 마량놀토수산시장'은 오는 10월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0회 내외로 운영되며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행사장에는 수산물 판매장과 음식점, 건어물, 길거리 음식, 할머니장터 등 총 23개 부스가 배치돼 청정 해역의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인프라 활용도 대폭 확대됐다.

남해안 대표 수산물 축제인 '마량놀토수산시장'이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된다. 사진은 시장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복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강진군 제공〉

마량항 전망대 카페 공간을 활용한 '오션뷰 아틀리에'는 기존 프로그램을 재편해 월별 테마형 원데이 클래스로 상설 운영되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한다.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과 체류 시간 연장을 위한 향후 맞춤형 콘텐츠도 단계별로 가동돼 하절기에는 에어바운스 물놀이장과 레저보트 체험 등 가족 친화형 레저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야간 시간대에는 LED 바다분수와 미디어파사드가 어우러진 특화 야경을 연출해 주간과 차별화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월에는 상설 공연인 '토요음악회' 500회 돌파를 기점으로 대규모 경품 이벤트와 풍성한 특화 체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올해 시장 개장일은 별도의 의전 행사 없이 철저히 방문객 밀착형으로 치러졌다.

개장을 기념해 전복 40%, 건어물 최대 20% 특별 할인 판매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화 캐릭터인 '마랑이'와 '사랑이'를 활용한 윈드배너 홍보물이 현장 분위기를 돋웠다.

이밖에 야외무대에서는 초청 가수 공연과 관광객 참여형 노래자랑이 어우러지며 성황을 이뤘다.

김용구 마량놀토수산시장 상인회장은 "수산물 품질 관리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마량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상권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첫선을 보인 마량놀토수산시장은 지난해까지 누적 관광객 112만명 이상, 총매출 104억원 규모를 달성하며 강진군의 대표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온 가족 다 함께 1억년 전 시간여행 떠나요"

해남군, 내달 2일 '공룡대축제' 개막
박물관 일원서 로봇·드론쇼 등 풍성

해남군이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전문 박물관을 무대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축제를 선보인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다음 달 2-5일 나흘간 해남공룡박물관 일원에서 '공룡이 살아있다! 해남공룡대축제'를 주제로 '제4회 해남공룡대축제'를 개최한다.

군은 지난해 3일간 13만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어린이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에 맞춰 축제 일정을 4일로 연장하고 행사 기간 내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했다.

올해는 어린이들이 공룡의 세계를 직접 만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를 대폭 확대하고,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우선 움직이는 대형 조형물과 로봇 공룡이 행사장을 직접 누비며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어 티라노사우루스 등 로봇 공룡의 거리 행진과 함께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캐치! 티니핑' 및 '베베핀' 싱어롱쇼가 매일 2차례씩 펼쳐진다.

지난해 개최된 '제4회 해남공룡대축제'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야외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축제 첫날인 2일에는 특별 야간 개장을 도입해 공룡 K-팝 댄스와 가족 음악회, 대규모 공룡 드론쇼를 선보인다.

잔디광장에서는 서커스와 마술 공연이 잇따라 열리며, 회전그네와 에어바운스를 갖춘 놀이터, 화석 발굴 및 발자국 탐험대(일 3회), 10종의 만들기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가 행사장 곳곳에 전면 배치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대규모 인파 밀집에 대비해 행사장 전역에 전문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관람객의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 민주당 경선 '공정성·기호정치' 도마위

장복성 예비후보 재경선 촉구 기각
'깜깜이 선거' 등 구조적 한계 지적

목포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경선을 둘러싸고 경선 불복을 넘어 당원 투표의 구조적 한계와 '기호 정치' 등 당내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로 번지고 있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목포시 제2선거구 광역의원 경선에 나섰던 장복성 예비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경선은 공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 전남도당에 재심과 재경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후보 측은 다수의 권리당원이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 과정에서 콜백 차단 등 시스템 오류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후보의 선거구 임의 변경 의혹과 부당한 신인 가산점 부여 등을 문제 삼으며 전수조사와 심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리당원 경선 시스템의 맹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가운데 민주당 전남도당은 재심 청구에 대해 기각했다.

당원 참여는 늘었지만 명부 비공개로 투명성이 떨어지며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고착화됐다는 것으로, 이는 조직 동원력과 금권 개입 등 각종 부작용의 원인으로 지목돼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제한적인 명부 공개 등 제도 보완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 특성상 민주당의 '1-가' 기호를 받는 것이 당선으로 직결된다는 인식이 굳어 기초의원 선거에 만연한 '기호 정치' 폐해도 주요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당원 민주주의 확대라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호'가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진정성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 마른김 가공공장 신축…어가 소득 증대 기대

郡-감로씨푸드법인, MOU 체결
물김 판로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신안군은 "최근 감로씨푸드 영어조합법인과 '2025년 전남권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마른김 가공공장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안군 압해읍 일원에 총 150억원 규모의 마른김 가공공장을 신축하고, 생산라인 2개를 갖춘 가공시설을 구축해 산지 생산-가공-유통이 연계된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안에서 생산되는 물김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가공까지 연계함으로써 물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물김 가격 하락과 대량 폐기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로씨푸드 영어조합법인은 해남군에 소재한 기업으로, 최근 2년간 약 2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이 중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USDA, HACCP, 유기가공식품인증, SQF 등 다양한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군은 협약을 계기로 산지 가공시설이 확충이 이루어질 경우, 김양식 어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산·가공·수출이 연계된 체계를 구축해 신안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무안군, 퇴원환자 통합돌봄 연계망 가동

관내외 5개 병원과 다자 협약

무안군이 퇴원 환자들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복귀를 돕고 재가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의료·요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 연계망을 가동한다.

14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날 군청에서 무안종합병원 등 5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는 무안종합병원,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포중앙병원, 목포기독병원 등 5개 병원이 참여했다.

각 병원은 퇴원 예정 환자의 돌봄 필요도를 파악해 고위험군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군에 연계 의뢰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의뢰받은 대상자에 대해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실질적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즉각 연계하고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과 접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촘촘한 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안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영광군, 취약계층 사각지대 최소화
현장밀착 '찾아가는 민원창구' 운영

영광군은 "최근 묘량면 운암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사회배려대상자 민원창구'를 운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이번 창구는 단순 상담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접수 후 담당 부서를 지정해 처리 결과를 전화나 서면으로 개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현장에서는 목욕 이용권과 기초 연금 수급 등 생활 밀착형 민원 상담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전자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24' 이용법과 무인민원발급기 조작 방법에 대한 현장 실무 교육도 함께 병행 추진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행정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함평군, 봄맞이 관광객 인센티브 3종 제공

교통·숙박 등 최대 50% 할인

함평군이 다가오는 봄철 나비대축제 등 관광 성수기를 맞아 교통과 숙박, 체험 시설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한다.

14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코레일 연계 철도 운임 지원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남도 숙박할인 등 3대 맞춤형 관광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5월까지 코레일 자유여행상품을 이용해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정보무늬(QR) 코드를 인증하면 철도 이용료 전액을 쿠폰으로 환급한다.

광주송정역을 경유할 경우 운임의 50%를 지원하며, 관내 3만원 이상 소비 영수증 인증 시 2만원 상당의 온라인 전용 쇼핑몰(함평천지몰) 쿠폰을 지급한다.

스마트 관광 기반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자에게는 관내 숙박 및 체험, 카페 등에서 최대 5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광주·전남 외 거주자가 함평에서 숙박할 경우 '남도 숙박할인 이벤트'를 통해 1박당 최대 4만원(최대 3박)의 숙박비를 직접 지원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장기 체류 기반을 다져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CMYK